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보성군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8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보성군 9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9개 마을은 보성을 두슬마을, 벌교읍 마동마을, 노동면 호미마을, 겸백면 평화마을, 읍면면 시목마을, 문덕면 장운마을, 조성면 귀산마을, 회천면 동촌마을, 웅지면 용추마을이다. 이 마을에게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이 주어졌다.

산불예방 유공 산림청장표창에는 회천면 동월리 김용섭 이장이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사업은 2014년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두슬·마동·호미·평화·시목 등 9개 마을
산림청장 표창, 회천면 동월리 김용섭 이장



하여 소각 산불 적정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성군에서는 올해 31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9개 마을 주민들은 불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활동, 자발적인 산불 예방에 힘쓰는 등 서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색마을 선정은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녹색마을 확산과 산불예방 활동 추진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재선정

광양시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광양읍 5개소, 중마동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보육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재선정된 어린이집은 광양읍이 자연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나누리어린이집, 편한어린이집, 디온어린이집 등 5곳, 중마동이 해오름어린이집 1곳이다.

이번 재선정으로 오는 9월부터 3년간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역점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이 중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전남도에는 총 76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보육선도 도시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대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학부모의 인지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오는 2022년까지 35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개소를 확충했다.

박양균 교육청소년과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주민이 만드는 9월 순천대화로 문화행사에 놀러 오세요

대학로 Festival&게임세상 · 고고장 · 밤바람 파티 등 다채

순천시는 9월 한 달 동안 순천대화로에 조성된 별별공간 일대에서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2016년 행안부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한 대학로 별별공간은 시민들이 소통, 체험, 버스킹, 네트워킹 등을 진행할 수 있는 8개의 분산된 공간이다.

9월 순천대화로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청년활동가, 주민, 참가자, 대학생들로 구성된 4개 단체에서 추진한다.

먼저,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청춘은 자라려다(하남석/12명)'에서 추진하는 '대학로 Festival'은 오는 8일 '명랑잔치' 주변에서 열리며, 주요 내용은 켈리댄스, 베트남요리, 연어회뜨기, 머그컵·팔찌·귀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을 추진한다.

오는 29일 '취업취업휴게소'에서 추진하는 '게임세상'은 FIFA 2018-16강 대회로 총 10명(선착순 접수)이 게임기(콘솔)로 축구 게임을 펼쳐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즐

기는 핫한 게임 중 하나다. 참가자들로 구성된 '삼산종류단(양지현/10명)'에서 추진하는 9월 고고장 반나고! 즐기고! 포보장!은 오는 15일 명랑잔치 일원에서 추진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추석맞이 민속놀이, 순천대 동아리연합회 공연, 주민과 함께 나누는 먹거리 체험 등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과 협업하여 추진한다.

청안대 재회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청안스포츠&재활(이정래/8명)'은 오는 14일 '드림제작소' 주변에서 운동과 재활관련 프로그램을

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기초 트레이닝, 도수관리, 근막스트레이징, 테이핑 등 여러 가지 재활트레이닝을 추진한다.

기타 향기로운 대학로, '퓨전 재즈와 대학로 낭만을 찾아, '문화살롱 7080버스킹'은 순천대화로 활성화와 공모사업에서 추진한다.

시민소통과 임팩트 과정은 '역량 있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대학로활성화 프로그램'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순천대화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특별법 제정 청원과 피해보상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은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8대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에서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광복의원을 선출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복위원장은 "여수·순천 등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여 명을 희생시킨 우리 지역 가슴 아픈 사건의 발발계기인 제주 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에 견주며, 여순사건이 반드시 재평가 되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유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의회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여순사건특위에서는 "여순사건 기초자료조사 수집, 유족회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와 현장방문 활동으로 희생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여순사건특위는 오광복위원장, 이영란부위원장, 강형구의원, 장승희의원, 최병배의원, 김미연의원, 박해정의원, 김미애의원 등 총 8명이 3일부터 1년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신규사업 적극 발굴 주문

9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현안사항 점검



9월 중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의 심도있는 질문과 부서장 간의 협의와 방향, 제시 등 어느 간부회의보다 사뭇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현복 시장은 "내년에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중요한 해로 민선6기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 내년에는 대부분 완료될 시기로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시행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네체육시설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보고 받은 정 시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 동네체육시설은 주 이용자가 어르신들이는데 반해 젊은 층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잘 반영해 향후 개선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인 '다들'이 출산반 행복쿠폰 지급'을 언급하며 "우리 시가 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대표하는 만큼 셋째 아이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장 운영 지원 ▲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추진 ▲ 광양시민의 날 행사 ▲ 보육사업 현안 업무 ▲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농민수당 도입 ▲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 가을철 축제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이 논의사항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광영동과 태인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관계부서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우리 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